

미혼남녀의 아동기 학대와 부부폭력 목격 경험이 부모됨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과 양육효능감의 직렬매개 효과*

전 은 다¹⁾

가톨릭대학교 아동학 전공

본 연구에서는 미혼남녀의 아동기 학대와 부부폭력 목격 경험이 부모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이러한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양육효능감이 순차적으로 직렬매개하는 경로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대상은 서울, 부산 등 7개 지역에서 학교 또는 직장을 다니는 20-30대 미혼남녀 282명으로, 연구 도구는 아동기 학대, 부부폭력 목격 경험, 자아탄력성, 양육효능감, 그리고 부모됨 결정에 관한 인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 빈도분석, 상관관계 분석, SPSS Process Macro model 6를 사용하여 직렬매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을 사용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 학대 경험은 부모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아동기 학대 경험은 자아탄력성과 양육효능감의 순차적 매개 효과를 통해 부모됨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부부폭력 목격 경험은 부모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자아탄력성과 양육효능감을 투입하면 부부폭력 목격 경험은 부모됨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자아탄력성과 양육효능감의 순차적 매개 효과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미혼남녀의 부모됨 결정에 대한 긍정적 인식 형성을 위해 자아탄력성 증진 및 양육효능감 형성에 중점을 두는 보다 체계적인 예비부모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주요어 : 아동기 학대, 부부폭력 목격 경험, 자아탄력성, 양육효능감, 부모됨 결정

* 이 논문은 2018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B5A07074260)

이 논문은 2019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추계학술대회 포스터발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1) 가톨릭대학교 아동학 전공 강사 (E-mail: eundalife@naver.com)

I. 서론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2018년에 0.98명으로, 2017년 1.05명 이후 다시 최저치를 기록하였다(통계청, 2019). 이러한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초저출산 기준선인 1.30명을 넘어서지 못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예측되며, 이에 정부에서는 2015년 10월에 제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제안하는 등 다각도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자녀를 낳고 기르는데 관심이 있어야 하는 젊은이들의 반응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저출산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출산을 연기하고 있는 무자녀 기혼자의 인식을 살펴본 연구(최연실, 성미애, 이재림, 2014)에 의하면, 출산 연기형 무자녀 기혼자는 ‘자녀 양육과 교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 ‘자녀를 돌볼 마땅한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 ‘자녀양육을 위한 적절한 주택 마련이 어려워’, ‘소득이 적어서’를 출산 연기 사유로 선택하였다. 또한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실시한 ‘저출산 국민인식조사’에서도 저출산의 원인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64.3%), ‘일과 육아 양립 문화가 미흡’(33.3%)한 것으로 밝혀졌다(파이낸셜뉴스, 2017. 8. 24.). 즉, 자녀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 외에도 일과 자녀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이 출산을 연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출산장려를 위해 사회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이 시급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측면이외에 젊은이들의 부모됨에 대한 인식 변화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는 출산율의 감소가 사회 문화적 변화와 관련된 개인의 가치관 형성 및 개인적 특성 등의 여러 요인과 함께 나타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단순한 정책적 논의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요인들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들(권영인, 2014; 김나영, 이지혜, 김은정, 김정신, 2010)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부모됨을 필수로 생각하지 않고 선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정옥분, 정순화, 2016). 즉, 부모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 자녀 없이 부부만으로도 가족이 형성, 유지될 수 있다는 인식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저출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잘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젊은이들의 부모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양육행동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교육 등을 통해 부모됨에 대한 기피 현상을 감소시키는 방안에 대한 모색도 필요함을 시사한다.

결혼과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형성은 자신이 태어난 원가족의 영향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자녀는 부모의 부부관계와 부모역할을 보면서 성장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결혼과 부모됨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구축해나간다. 이와 관련하여 부모의 부부갈등에 노출된 정도가 높은 자녀일수록 이성과의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정윤경, 김재엽, 2005), 부모의 부부갈등은 관찰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성인이 되어서도 그들의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쳐 결혼생활이 안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고하였다(황지인, 함경애, 천성문, 2014). 또한 아동기

때 부모의 애정은 청소년 시기의 가족 응집성을 통해 성인기의 관계만족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반면, 소리 지르고 때리는 학대적인 부모역할은 성인기의 관계만족도에 직접적으로 부정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Hart Parade, Supple, & Helms, 2012)와 대학생들이 가족건강성 중 가족유대가 높을수록 부모가 됨으로써 보상을 많이 받게 된다고 긍정적으로 인식한 연구(이선정, 2009)를 통해 자녀의 결혼과 부모됨에 대한 원가족 영향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이 점차 드러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8)에서 발표한 아동학대 행위자의 특성에 의하면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전체의 2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이외에도 부부 및 가족갈등(7.3%), 그리고 어릴 적 학대경험(1.1%)이 제시되고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원가족의 갈등이나 학대 경험 등은 부모역할에 대한 회의와 함께 부모역할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법 부족으로 이어져 양육효능감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젊은이의 부모됨 결정에 대한 원가족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원가족의 영향력은 미혼 자녀가 어릴 적 학대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과 부모의 부부폭력을 목격한 경험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오늘날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선행연구에서도 원가족에서 발생하는 학대경험

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입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백종립과 정익중(2013)은 과거에는 자녀를 학대의 직접적인 피해자로 이해했다면 최근에는 가정폭력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동시에 부부폭력을 목격하는 경험에 의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간접적인 피해자라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가정 내에서 직간접적 폭력인 아동학대와 부부폭력 목격 경험은 아동 청소년의 심리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백종립, 정익중, 2013; 신선인, 2008; 이은진, 안귀여루, 2016; 최장원, 김희진, 2011; Haj-Yahia & Bargal, 2014), 아동기에 부모로부터의 학대와 같은 외상 경험이 자녀의 인생에 발달이나 병리적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권지은, 황순택, 이승복, 2012; Davis, Petretic-Jackson, & Ting, 2001). 한편 안귀여루와 서경현(2007)은 성장기에 자신에게 직접 이루어진 폭력행동에 비해 부모 간에 발생한 폭력을 목격하는 것이 이후의 심리적 적응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간접적인 부부폭력 목격 경험의 심각성을 언급하였다. 즉, 가정 내의 직간접적인 폭력이 자녀의 발달과 그들의 이성관계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미혼남녀의 부모됨 결정에 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혼 자녀가 어릴 적 학대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과 부모의 부부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그들의 부모됨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한다.

아동기 학대경험과 같은 원가족에서의 경험은 직접적으로 부모됨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자아특성 관련 변인이나 양육효능감 등에 의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우선 학대경험은 자아특성 관련 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Lopez와 Heffer (1998)는 신체적 학대 경험은 성인기의 자기개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추경진과 최종옥(2015)은 발달적으로 취약하고 자아(self)가 아직 형성되고 공고화되기 전인 아동기에 정서적 학대를 많이 경험할수록 그 후 유증으로 자기체계 손상의 정도가 심각해진다고 하였다.

한편 개인의 자아특성 관련 변인이 부모역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Buyukcan-Tetik, Finkenauer, Siersema, Vander Heyden, & Krabbendam, 2015). 이와 관련하여 자아 통제에 이루어지면 관계 향상을 위해 충동을 억제하고 상대방의 부정적인 행동에 건설적으로 반응할 수 있으며(Vohs, Finkenauer, & Baumeister, 2011), 청소년기에 시설보호의 경험이 있었던 어머니 대상의 연구에 의하면 자아통제력이 낮은 어머니는 가족 갈등과 양육효능감 간에 부적 상관이 있었지만, 자아통제력이 높은 어머니는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아 자아통제력이 가족 갈등으로 나타나는 부담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주요 자원임을 확인하였다(Cassé, Finkenauer, Oosterman, Geest, & Schuengel, 2018). 또한 이선정(2009)은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부모가 됨으로써 대가를 많이 치른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높은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수행하려는 일에 대해 수용된다는 확신과 함께 부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미래의 부모됨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덜 한다고 하였다. 한편 Hardy, Soloski, Cole Ratcliff, Anderson과 Willoughby(2015)는 원

가족 → 적응적 과정(adaptive processes) → 관계 결과의 경로를 검토하면서, 적응적 과정으로 관계에 대한 자기규제(relationship self-regulation) 개념을 제안하였다. 관계에 대한 자기규제는 부부관계를 유지하고자 각 파트너들이 노력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관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자기 변화를 하는 것으로 원가족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한 파트너는 긍정적인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아특성 관련 변인으로 자아탄력성(ego-resilience)을 제안하고자 한다. 자아탄력성은 자아를 통제하고 회복하는 노력을 통해 스트레스 상황이나 위협적 환경을 극복하고 효율적으로 적응하도록 하는 개념이다. 레질리언스(resilience)는 역경으로부터 다시 일어나 강해지고 자원을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Walsh, 1998), 개인 내적인 보호요인이다(임미지, 김종운, 2019).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아동기 학대와 부부폭력 목격과 같은 원가족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은 자아탄력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것이 다시 부모됨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부모역할을 유능하고 효과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 자신의 평가로(Suzuki, Holloway, Yamamoto, & Mindnich, 2009),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양육효능감은 부모역할에 대한 적응을 돕고 자녀양육과 관련된 일반적이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관리하도록 동기를 제공하는 중요한 인지적

특성으로 널리 인정받아 왔다(Jones & Prinz, 2005; Coleman & Karraker, 1998). 이에 대해 김수정(2016)은 현 시대의 한국이라는 문화적 맥락에서 양육효능감 변인은 부모들이 처한 현실적이고 상황적인 요소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 혹은 중재하는 주요한 심리적 자원으로 기능한다고 하였다. Coleman과 Karraker(1998)는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친 부모의 과거변인으로 원가족에서 주된 양육자와의 애착을 제안했으며, 원가족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았다고 지각한 어머니들은 부모역할 수행에 자신감을 가졌으며(김수정, 2016), 원가족에게서 받은 양육경험은 부모가 되어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이진선, 정문자, 2007)를 통해 원가족에서의 경험이 부모역할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자신의 부모됨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권영인(2014)은 자녀양육 관련 변인들 중 실제적 예상 자녀수에 유의하게 관련된 변인은 자녀양육 가치관으로,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 생각을 가질수록 많은 수의 자녀를 갖기를 예상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원가족에서 학대를 경험하고 부모의 부부폭력을 경험한 자녀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신의 역량에 의구심을 가질 확률이 높으며, 이는 부모됨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연구는 많이 부족한 편이다.

한편 자아탄력성은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임미

지와 김종운(2019) 연구에 의하면, 연구대상의 연령을 초월하여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새롭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융통성 있고 효율적으로 적응하며 과제해결을 위한 충동 통제를 잘 하는 행동 특성을 가졌다. 이는 자아탄력성이 자녀양육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양육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에 대해 하쾌남(2016)은 남편과 부인 각자의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각자의 양육효능감이 높다고 하였다.

오늘날 저출산 예방을 위해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등을 지원하는 출산장려정책이 중요하게 제기되어 최근에는 부모가 되고자 결정하는 출산의사를 출산장려정책과 연관시킨 연구들(신지현, 2013; 신호영, 방은령, 2009; 이승주, 문승현, 2017; 이춘화, 2018)이 많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자녀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과 일·가정양립에 초점이 맞추어져 출산장려정책이 진행되던 프레임에서 벗어나 원가족의 직간접적인 학대경험, 자아탄력성, 그리고 양육효능감이 미혼남녀의 부모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이와 관련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출산율이 감소하고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사회문제화 되는 현 상황에서 미혼남녀의 부모됨 결정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가족 환경적 변인을 밝혀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혼남녀의 아동기 학대와 부모의 부부폭력 목격 경험이 부모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이러한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양육효능감이 순차적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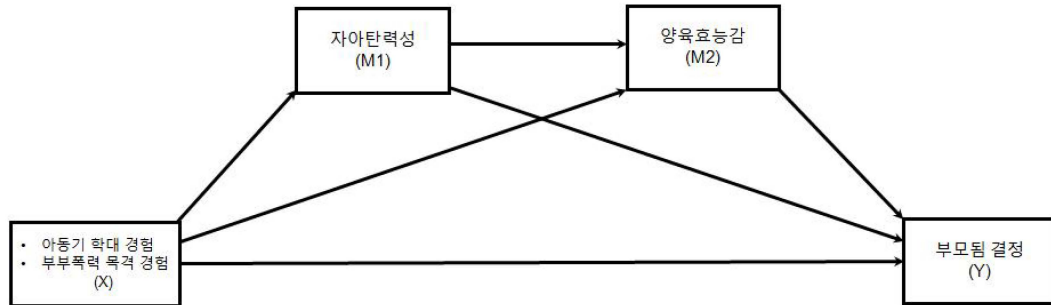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로 직렬매개하는 경로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재확인함으로써 학대 예방에 기여할 수 있으며, 부모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과 가족적 변인을 탐색하여 자녀출산 및 양육 정책에 다양한 접근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미혼남녀의 아동기 학대 경험과 부모됨 결정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양육효능감이 직렬매개 하는가?

연구문제 2. 미혼남녀의 부부폭력 목격 경험과 부모됨 결정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양육효능감이 직렬매개 하는가?

1 참조).

성별은 남성 141명(50.0%), 여성 141명(50%)이며, 연령대는 만 19-24세가 전체의 70.9%를 차지하였으며, 25세 이상은 29.1%로 나타났다(평균 연령은 23.23, SD=4.45). 연구 대상의 직업은 대학생이 202명(71.6%), 직장인은 65명(23%), 기타가 15명(5.3%)이었다. 예비부모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가 전체의 75.5%로 연구 대상의 대부분이 예비부모교육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미래에 결혼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있다’가 65.6%, ‘없다’가 1%, ‘아직 잘 모르겠다’가 23.8%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아동기 학대 경험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학대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이주성(2005)의 아동기 피학대 경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주성의 척도 중 신체학대 10문항, 정서학대 9문항, 방임 9문항으로 구성된 총 28문항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없었다’(1점)에서 ‘일주일 이상’(5점)의 5점 Likert 척도에 반응하게 하여 각 문항에 체크한 빈도를 합하여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부산, 광주, 경기, 강원, 경북, 충청지역에서 학교 또는 직장을 다니는 20-30대 미혼남녀 282명이 대상이며,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 = 282)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성		직장인 학력	
남성	141 (50)	고등학교 졸업 이하	3 (4.6)
여성	141 (50)	전문대 졸업	6 (9.2)
연령		대학교 재학 중	2 (3.1)
19 - 24세	200 (70.9)	대학교 졸업	53 (81.5)
25 - 29세	49 (17.4)	대학원 졸업	1 (1.5)
30 - 34세	27 (9.6)	기타 학력	
35 - 39세	6 (2.1)	고등학교 졸업 이하	2 (14.3)
직업		대학교 재학 중	3 (21.4)
학생	202 (71.6)	대학교 졸업	9 (64.3)
직장인	65 (23.0)	예비부모교육 경험	
기타	15 (5.3)	있다	69 (24.5)
학생 학력		없다	213 (75.5)
대학교 1 학년	3 (1.1)	부모님 결혼 상태	
대학교 2 학년	105 (37.2)	초혼	207 (73.4)
대학교 3 학년	41 (14.5)	재혼	18 (6.4)
대학교 4 학년	43 (15.2)	사별	25 (8.9)
대학원 석사과정	4 (1.4)	이혼	18 (6.4)
휴학중	6 (2.1)	별거	3 (1.1)
직장인 고용상태		미래 결혼 생각	
정규직	42 (64.6)	있다	185 (65.6)
비정규직	21 (32.3)	없다	29 (10.3)
사업주	2 (3.1)	아직 잘 모르겠다	67 (23.8)

점수를 산출하였다. 각 유형별 문항의 예를 들면, 신체학대(예: “손으로 얼굴이나 머리, 팔을 때린 적이 있었다.”), 정서학대(예: “지나친 기대와 관심으로 간섭하고 통제하며,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비난하거나 화를 내셨다.”)와 방임(예: “어떤 친구들과 무엇을 하며 지내는

지 관심이 없었다.”)이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기 학대 경험이 많이 발생하였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아동기 학대 경험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87로 나타났다.

부모의 부부폭력 목격 경험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부부폭력 목격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이주성(2005)의 아동기 피학대 경험 척도 중 부모 간 폭력 목격 10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없었다’(1점)에서 ‘일주일에 1회 이상’(5점)의 5점 Likert 척도에 반응하게 하여 각 문항에 체크한 빈도를 합하여 점수를 산출하였다. 이에 대한 문항의 예로는 ‘약점을 잡아 서로를 괴롭히는 말’,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던지는 행동’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부모의 부부폭력 목격 경험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84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2009)이 개발한 한국형 회복탄력성 지수 검사와 이 척도를 대학생에게 맞게 변형한 이유민(2014)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제성 9문항(예: “나는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가능한 해결방안에 대해 먼저 생각한 후에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긍정성 9문항(예: “나는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모든 일이 다 잘 해결될 거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사회성 9문항(예: “나는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의 3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자아탄력성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85로 나타났다.

양육효능감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Allen(1993)이 개발한 양육효능감 척도(Parenting Efficacy Scale: PES)를 번안하여 사용한 최선미(2015)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Allen(1993) 척도는 만 3세부터 10세의 유아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으며, 양육효능감 자체를 측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도구이다. 또한 이 척도는 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에 의해 만들어져 보다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척도라 할 수 있다(최형성, 2002). 이 척도를 본 연구대상인 미혼남녀가 현재와 미래 상황을 고려하여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가정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문항의 내용을 수정하였다. PES는 5개 하위요인, 총 3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는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줄 수 있다.”와 같은 사랑 3문항, “나는 아이의 행동을 적절하게 통제한다고 느낄 수 있다.”와 같은 통제 6문항, “나는 아이에게 내 감정을 잘 전달할 수 있다.”와 같은 의사소통 10문항, “나는 내 아이를 잘 가르칠 수 있다.”와 같은 교육 4문항, “나는 내가 유능한 부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와 같은 전반적인 효능감 11문항 등 5개의 하위영역 총 3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의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양육효능감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가 .92로 나타났다.

부모됨 결정

부모됨 결정에 관한 인식 척도는 도미향(2011), 박현옥(2013) 척도 중 부모됨의 가능성 및 부모됨에 대한 인식에 대한 문항 등에 기초하여 이에 대한 척도를 구성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문항은 “부모가 될 가능성이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부모가 될 가능성은 없다.”, “부모가 되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와 같은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식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됨을 결정할 가능성이 많음을 의미한다. 부모됨 결정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가 .71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예비조사로 미혼 남성과 미혼 여성 각 5명씩 총 1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 설문지 문항의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에 근거하여 일부 문항 내용을 수정하였다. 이렇게 완성된 본 조사 설문지와 연구계획서, 설명문 및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생명윤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에 2019년 3월 6일에 제출하였고, 2019년 3월 19일에 승인을 받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때 연구 대상자는 연구목적 및 대상자가 알아야 하는 사항 등을 적은 설명문을 읽고 동의하는 경우 동의서를 작성한 후 설문조사에 응하는 과정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본 조사는 서울, 부산, 광주, 경기, 강원, 경북, 충북지역에서 학교 또는 직장을 다니는

20-30대 미혼남녀 300명이 대상이었으며, 이 중 총 291부가 회수되었고, 수거한 설문지 중에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미완료 및 불성실한 설문지 9부를 제외한 총 282부의 응답 자료를 통계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 21.0(IBM Co., Armonk, NY)과 AMOS 21.0(IBM Co., Armonk, NY)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먼저 미혼남녀의 아동기 학대와 부부폭력 목격 경험, 자아탄력성, 양육효능감, 부모됨 결정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과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아동기 학대 경험과 부모됨 결정, 부부폭력 목격 경험과 부모됨 결정 간의 각각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양육효능감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Hayes, 2013) model 6를 사용하여 직렬매개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모형의 측정 오차를 반영하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Hayes(2013)는 Process Macro의 결과에 나타난 모든 효과는 표준화 계수(β)보다 비표준화 계수(B)가 자료를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제안하고 있음으로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모든 효과를 비표준화 계수(B)로 보고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기초분석

먼저 변인들의 평균을 살펴보면 아동기 학대 경험은 $1.17(SD = .24)$, 부부폭력 목격 경험은 $1.20(SD = .34)$ 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아탄력성은 $3.61(SD = .43)$, 양육효능감은 $3.40(SD = .48)$, 부모됨 결정은 $3.26(SD = .88)$ 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미혼 남녀의 아동기 학대 경험과 자아탄력성, 양육효능감 간에는 부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r = -.19 \sim -.16, p < .01$), 부모됨 결정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 = -.09, ns$). 즉, 아동기 학대를 많이 경험한 미혼남녀는 낮은 수준의 자아탄력성과 낮은 수준의 양육효능감을 갖는 것과 관련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미혼남녀의 아동기 학대 경험은 부모됨 결정과는 유의미한 관련이 없었다. 매개분석을 위해 Baron과 Kenny(1986)는 상관관계를 제 1 선결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Hayes(2013)는 상관관계는 인과관계의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아님을 지적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Hayes(2013)의 제안에 따라 직렬매개 효과(Model 6)를 검증하고자 한다.

그리고 부부폭력 목격 경험과 자아탄력성, 양육효능감, 부모됨 결정 간에는 모두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22 \sim -.13, p < .05$). 이는 부부폭력 목격 경험이 많은 미혼남녀는 낮은 수준의 자아탄력성과 양육효능감, 그리고 부모가 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자아탄력성은 양육효능감, 그리고 부모됨 결정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 = .55 \sim .73, p < .001$), 양육효능감도 부모됨 결정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52, p < .001$). 즉, 자아탄력성이 높은 미혼남녀는 높은 수준의 양육효능감과 부모됨을 결정하는 것 사이에 유의미한 관련이 있으며, 또한 양육효능감이 높은 미혼남녀는 부모됨을 결정하는 것과도 유의미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표 2 참조).

표 2.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와 평균, 표준편차

(N = 282)

변인	1	2	3	4	5
1. 아동기 학대 경험					
2. 부부폭력 목격 경험	.80***				
3. 자아탄력성	-.16**	-.22***			
4. 양육효능감	-.19**	-.20**	.73***		
5. 부모됨 결정	-.09	-.13*	.55***	.52***	
Mean	1.17	1.20	3.61	3.40	3.26
SD	0.24	0.34	0.43	0.48	0.88

* $p < .05$. ** $p < .01$. *** $p < .001$.

2. 아동기 학대 경험과 부모됨 결정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양육효능감의 직렬매개 효과

미혼남녀의 아동기 학대 경험이 자아탄력성과 양육효능감을 거쳐서 순차적으로 부모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Process Macro 6 model을 활용하여 직렬매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미혼남녀의 아동기 학대 경험을 독립변인으로, 부모됨 결정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후 자아탄력성을 제 1 매개변인으로, 양육효능감을 제 2 매개변인으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아동기 학대 경험은 부모됨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 = -.33, ns$). 그러나 자아탄력성과 양육효능감의 매개변인을 투입한 결과, 미혼남녀의 아동기 학대 경험은 자아탄력성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B = -.28, p <$

.01), 자아탄력성은 양육효능감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B = .80, p < .001$), 양육효능감은 부모됨 결정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49, p < .001$). 즉, 미혼남녀가 아동기 학대를 많이 경험할수록 자아탄력성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아탄력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의 수준이 높아지며, 이는 부모됨을 결정할 가능성이 많음을 의미한다. 이때, 아동기 학대 경험과 자아탄력성, 양육효능감이 부모됨 결정을 33.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 = 46.00(3, 278), p < .001$)(표 3, 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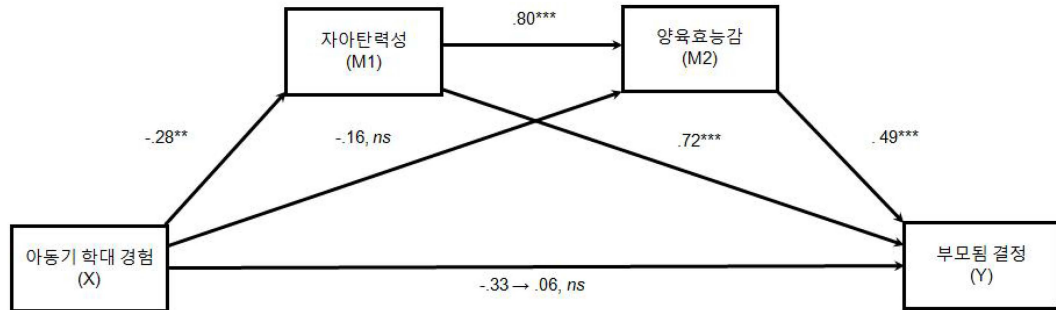
한편 Bootstrapping 검증을 통해 총효과와 간접효과와의 신뢰구간을 검증한 결과 표 4에서와 같이 미혼남녀의 아동기 학대경험, 자아탄력성, 양육효능감이 부모됨 결정에 미치는 총효과는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 = -.33, t =$

표 3. 아동기 학대 경험과 부모됨 결정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양육효능감의 직렬매개 효과 ($N = 282$)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t	95% CI		$F(df)$	R^2
					LL	UL		
부모됨 결정	아동기 학대 경험	-.33	.22	-1.51	-.75	.10	2.28 (1, 280)	.01
자아탄력성	아동기 학대 경험	-.28	.11	-2.64**	-.49	-.07	6.99** (1, 280)	.02
양육효능감	아동기 학대 경험	-.16	.08	-1.95	-.32	.00	167.06***	.55
	자아탄력성	.80	.05	17.65***	.71	.89	(2, 279)	
부모됨 결정	아동기 학대 경험	.06	.18	.33	-.30	.42	46.00***	.33
	자아탄력성	.72	.15	4.88***	.43	1.01	(3, 278)	
	양육효능감	.49	.13	3.69***	.23	.76		

Note: CI=Confidence Interval; LL=Lower Limit; UL=Upper Limit

* $p < .05$. ** $p < .01$. *** $p < .001$.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2. 아동기 학대 경험과 부모됨 결정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양육효능감의 직렬매개 효과

표 4. 아동기 학대 경험과 부모됨 결정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양육효능감의 간접효과 검증

($N = 282$)

	<i>B</i>	<i>SE</i>	<i>t</i>	95% CI	
				<i>LL</i>	<i>UL</i>
총효과 ¹⁾	-.33	.22	-1.51	-.75	.10
직접효과	.06	.18	.33	-.30	.42
간접효과					
전체	-.39	.11		-.64	-.19
X→M1→Y	-.20	.08		-.37	-.08
X→M2→Y	-.08	.05		-.19	.00
X→M1→M2→Y	-.11	.05		-.23	-.03

Note: CI=Confidence Interval; LL=Lower Limit; UL=Upper Limit

X: 아동기 학대 경험, M1: 자아탄력성, M2: 양육효능감, Y: 부모됨 결정

-1.51, *ns*, 95% CI [-.75, .10]). 그러나 미혼남녀의 아동기 학대 경험이 자아탄력성과 양육효능감을 거쳐 부모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B = -.11$, 95% CI [-.23, -.03]).

1) 총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경우에도 간접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날 수 있다(Hayes, 2013).

3. 부부폭력 목격 경험과 부모됨 결정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양육효능감의 직렬매개 효과

부부폭력 목격 경험과 부모됨 결정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양육효능감의 직렬매개 효과를 분석한 결과 먼저 부부폭력 목격 경험이 부모됨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B = -.33$, $p < .05$). 그러나 이

들 사이에 자아탄력성과 양육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한 결과 부부폭력 목격 경험이 부모됨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 = .01, ns$). 그러나 부부폭력 목격 경험은 자아탄력성에 부적적으로 영향을 미치며($B = -.28, p < .001$), 자아탄력성은 양육효능감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80, p < .001$). 그리고 양육효능감은 부모됨 결정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B = .49, p < .001$). 즉, 미혼남녀가 부부폭력 목격 경험이 많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 수준이 높아지며, 부모됨 결정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때 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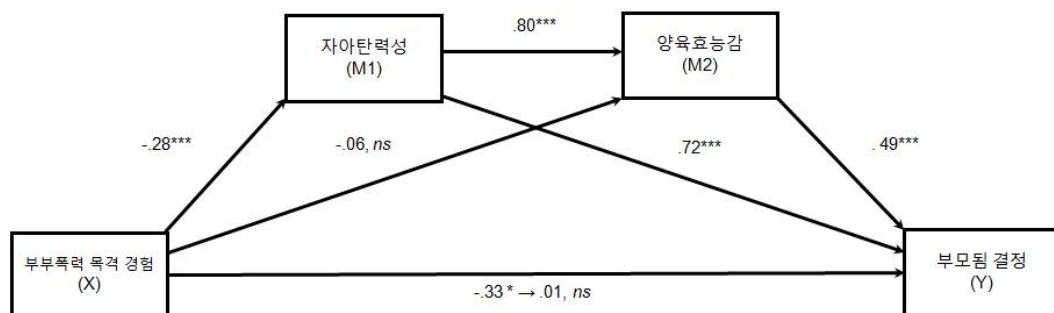
표 5. 부부폭력 목격 경험과 부모됨 결정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양육효능감의 직렬매개 효과

($N = 282$)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t	95% CI		$F(df)$	R^2
					LL	UL		
부모됨 결정	부부폭력 목격 경험	-.33	.16	-2.13*	-.63	-.03	4.53* (1, 280)	.02
자아탄력성	부부폭력 목격 경험	-.28	.08	-3.73***	-.43	-.13	13.93*** (1, 280)	.05
양육효능감	부부폭력 목격 경험	-.06	.06	-.99	-.17	.06	163.98*** (2, 279)	.54
	자아탄력성	.80	.05	17.44***	.71	.89		
부모됨 결정	부부폭력 목격 경험	.01	.13	.07	-.25	.27	45.95*** (3, 278)	.33
	자아탄력성	.72	.15	4.86***	.43	1.01		
	양육효능감	.49	.13	3.67***	.23	.75		

Note: CI=Confidence Interval; LL=Lower Limit; UL=Upper Limit

* $p < .05$. ** $p < .01$. *** $p < .001$.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3. 부부폭력 목격 경험과 부모됨 결정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양육효능감의 직렬매개 효과

표 6. 부부폭력 목격 경험과 부모됨 결정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양육효능감의 간접효과 검증

(N = 282)

	B	SE	t	95% CI	
				LL	UL
총효과	-.33	.16	-2.13*	-.63	-.03
직접효과	.01	.13	.07	-.25	.27
<u>간접효과</u>					
전체	-.34	.09		-.53	-.18
X→M1→Y	-.20	.06		-.34	-.09
X→M2→Y	-.03	.04		-.11	.03
X→M1→M2→Y	-.11	.04		-.20	-.04

Note: CI=Confidence Interval; LL=Lower Limit; UL=Upper Limit

X: 부부폭력 목격 경험, M1: 자아탄력성, M2: 양육효능감, Y: 부모됨 결정

폭력 목격 경험과 자아탄력성, 양육효능감은 부모됨 결정을 총 33.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그림 3 참조).

한편 Bootstrapping 검증을 통해 총효과와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을 검증한 결과 표 6에서와 같이 미혼남녀의 부부폭력 목격 경험, 자아탄력성, 양육효능감이 부모됨 결정에 미치는 총효과와 간접효과 모두 신뢰구간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혼남녀의 부부폭력 목격 경험이 부모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총효과는 $B = -.33$ ($t = -2.13$, $p < .05$, 95% CI [-.63, -.03])로 나타났다. 부부폭력 목격 경험이 자아탄력성과 양육효능감을 통해 부모됨 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렬매개의 간접효과 역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B = -.11$, 95% CI [-.20, -.04]).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출산율이 감소하고 아동학대의 문제점이 심각해지는 오늘날 미혼남녀의 아동기 학대 및 부부폭력 목격 경험과 부모됨 결정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양육효능감이 순차적으로 직렬매개하는 경로를 분석하고자 아동기 학대와 부부폭력 목격 경험이 부모됨 결정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20-30대의 미혼남녀 282명이 연구대상이었으며, 자료를 분석하여 얻어진 결과에 대한 요약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혼남녀의 아동기 학대 경험과 부모됨 결정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양육효능감의 직렬매개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아동기 학대 경험은 부모됨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자아탄력성과 양육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한 결과 미혼남녀의 아동기 학대 경험은 자아탄력

성에 부적으로($B = -.28, p < .01$), 자아탄력성은 양육효능감에 정적으로($B = .80, p < .001$), 양육효능감은 부모됨 결정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49, p < .001$). 즉, 아동기 학대 경험은 부모됨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아탄력성과 양육효능감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부모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직렬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는 미혼남녀가 아동기 학대를 많이 경험할수록 자아탄력성이 낮아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자아탄력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 수준이 높아지며, 이는 다시 부모됨 결정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연구는 없어 본 연구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하는 것은 어렵지만 일부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결과를 통해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미혼남녀가 아동기 학대를 많이 경험할수록 자아탄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아동기에 부모로부터의 학대와 같은 외상 경험이 전생애 발달이나 병리적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한 권지은 등(2012)의 결과, 그리고 아동기의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는 성인기의 자기개념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자기체계 손상정도가 심각해진다는 결과(추경진, 최종옥, 2015; Lopez & Heffer, 1998)와 일치한다. 또한 학대 경험 자체의 문제보다 학대로 인해 주위와 상호작용하는 개인의 특성에 영향을 미쳐 부정적응과 내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영웅(2011)의 결과와도 연관된다. 따라서 자아를 통제하고 회복하는 노력을 통해 스트레스 상황이나 위협적 환경을 극복하고 효율적으로 적응하도

록 하는 개념인 자아탄력성도 아동기 학대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아동기에 학대가 발생하는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는 합리적 설명이 주어지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여러 유형의 학대를 경험하면서 스스로가 그러한 환경을 극복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아를 통제하고 회복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미혼남녀의 자아탄력성이 그들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부모의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 박현숙(2017), 하폐남(2016)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양육스트레스가 유발되는 상황에서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은 부모들은 낮은 부모들에 비해 자아통제조절 및 적응능력이 높아 양육스트레스에 대해 긍정적인 적응을 보여준다는 고혜진(2005)의 결과와 연관된다. 이는 자아탄력성이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양육스트레스에 잘 대처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한편 양육효능감이 부모됨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 결과와 관련된 직접적인 연구를 찾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출산인식(자녀가치관)이 출산할 자녀 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한 도미향(2011)의 연구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관, 사회적 가치관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반면, 부담적 가치관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 박수빈과 김희화(2012)의 연구, 그리고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에 대한 긍정적 생각을 가질수록 많은 수의 자녀를 갖는 것으로 예상한 권영인(2014) 연구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

다. 이는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가진 미혼남녀는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부모됨을 결정할 가능성이 보다 많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합해서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미혼남녀의 아동기 학대 경험은 자아탄력성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개인 내적인 보호요인인 자아탄력성 증진 등을 통해 양육효능감 형성을 지원하고, 양육효능감 증진은 부모됨 결정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부부폭력 목격 경험과 부모됨 결정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양육효능감의 직렬매개 효과를 분석한 결과 먼저 부부폭력 목격 경험이 부모됨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B = -.33, p < .05$). 이러한 결과는 부부가 서로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사용하여 갈등을 해결하면 자녀의 발달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은진과 안귀여루(2016)의 연구와 관련이 있다. 즉, 자녀가 부모의 부부폭력을 목격한 경험은 부부관계와 부모역할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는 부모됨을 결정할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아동기 학대 경험은 부모됨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부부폭력 목격 경험이 부모됨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본 연구결과는 대학생 자녀가 성장기에 직접 부모로부터 받은 폭력 경험에 비해 부모 간에 발생한 폭력을 목격하는 것이 이후의 심리적 적응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안귀여루와 서경현(2007)의 연구와 관련된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 자아탄력성과 양육효능

감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한 결과 부부폭력 목격 경험이 부모됨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 = .01, ns$). 그러나 부부폭력 목격 경험은 자아탄력성에 부적으로($B = -.28, p < .001$), 그리고 자아탄력성은 양육효능감에 정적으로($B = .80, p < .001$), 양육효능감은 부모됨 결정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49, p < .001$). 즉, 미혼남녀가 부모의 부부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많을수록 자아탄력성 낮아졌다. 그러나 이 때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의 수준이 높아지며, 이는 다시 부모됨 결정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부부폭력 목격 경험은 자아탄력성과 양육효능감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부모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직렬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자녀가 부모의 부부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미혼남녀의 자아탄력성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과거에는 자녀를 학대의 직접적인 피해자로 이해했다면 최근에는 아동학대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동시에 부부폭력을 목격하는 경험에 의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간접적인 피해자라는 주장을 제시한 백종림과 정익중(2013)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된다. 한편 아동기 학대경험과 부부폭력 목격 경험 간에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 = .80, p < .001$),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이 인식한 부모의 폭력 경험과 아동기 폭력 경험은 유의한 상관이 있다고 한 김은주와 조정미(2011)의 연구와 일치한다.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폭력이 중복 발생한 경우 폭력 상황과 관련하여 주변 사람들이 관계되고 자

녀의 자기 비난과 이어져 상황 자체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는 Finkelhor, Ormrod와 Turner (2007)의 연구, 아내구타 가정의 자녀는 부모 간 폭력의 목격과 신체적 학대 경험으로 인하여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에서 모두 심각한데 특히 사고의 문제, 우울/불안 등의 내재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한 신혜섭(2000)의 연구와도 연관된다. 즉, 가정 내 직간접적 폭력인 아동학대 및 부부폭력 목격 경험 모두는 자녀의 우울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자아탄력성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본 연구결과는 아동기 학대와 부부폭력 목격 경험이 자아탄력성에 부정적으로, 그리고 자아탄력성이 양육효능감에 정적 영향을 주는 순차적인 매개를 통해 부모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자아탄력성과 양육효능감이 아동기 학대 및 부부폭력 목격 경험과 부모됨 결정 사이에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매개변인이라는 결과는 과거에 행해진 학대 및 부모의 부부폭력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개입이 가능한 자아탄력성 증진 및 양육효능감 형성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즉, 미혼남녀의 부모됨 결정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인식 형성을 위해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이를 위해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 스스로 자아를 통제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인 자아탄력성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직간접적으로 학대를 경험한 미혼남녀의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아동기 학대와 부부폭력

목격 경험이 자아탄력성에 부정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통해 학대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확인하였는데, 이런 악순환적인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폭력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것이 우선 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직간접적 학대가 이루어져 개인의 자아탄력성이 낮아진 경우에는 자아탄력성 회복을 위한 개인 및 집단 상담, 그리고 교육프로그램에 참여를 독려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자아탄력성이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양육효능감은 다시 부모됨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통해 긍정적인 자녀가치관 형성과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결혼과 부모됨을 고민하는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감과 가족 간 유대감 향상 및 사회에서 자녀양육을 지지하고 있음을 알리는 보다 전문적인 예비부모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을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예비부모교육 개발 및 실시 관련 전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부모됨 결정에 대한 긍정적 인식 형성을 위해서는 자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수립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김나영 등(2010)은 자녀가 있음으로 해서 부모가 느끼는 인생의 가치, 행복감과 기쁨 등이 다른 경제적 비용보다 앞선다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육아와 교육비용에 대한 사회 부담 등의 다양한 지원과 더불어 홍보나 캠페인을

통해 자녀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정리한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대상의 아동기 학대와 부부폭력 목격 경험의 평균은 각각 1.17과 1.20으로 직·간접적인 학대가 적은 집단이다. 특히 전체 대상자 중 71.6%가 학생으로 구성되는 등 비임상군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변인 간 관계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아동기 학대와 부부폭력 목격 경험이 자아탄력성과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부모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크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학대를 심각하게 경험한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등 반복연구를 통해 직렬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이 분야의 연구결과 축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설문조사 응답에서 사회적 바람직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회상의 방식을 사용하여 아동기 학대와 부부폭력 목격 경험을 물어본 것은 실제 경험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학대 경험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있는 그대로 학대를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후속연구에서는 사회적 바람직성을 함께 측정하여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측정한 부모됨 결정에 대한 인식은 미혼남녀의 실제 자녀출산으로 이어져 부모가 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아동기 학대와 부부폭력 목격 경험이 직접적으로 미혼남녀의

부모됨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자아탄력성과 양육효능감을 순차적으로 매개한 후에 부모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비록 학대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일지라도 자아탄력성과 양육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 및 예비부모교육을 실시한다면 그들의 부모됨 결정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학대의 직·간접적 경험과 자아탄력성, 양육효능감, 그리고 부모됨 결정간의 관계를 함께 다룬 연구가 거의 없는 가운데 본 연구는 이들 변인들을 함께 통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특히 정부 주도의 출산장려정책 방향이 그동안 자녀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일·가정양립에만 집중하였다면, 이제는 개인의 내면적인 특성 및 가족 환경적 변인 등 다양한 접근 방안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고혜진 (2005).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태도의 관계에 미치는 자아탄력성의 중재효과 및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영인 (2014). 미혼 및 기혼 무자녀 남성과 여성의 출산 의사 고찰과 미래 예상 출산 자녀수 관련 변인 탐색. *한국생활과학회지*, 23(2), 251-268.
- 권지은, 황순택, 이승복 (2012). 정서적 학대

- 및 방임과 성격장애.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1(10), 75-87.
- 김나영, 이지혜, 김은정, 김경신 (2010). 의식 변화와 출산율간의 상관성과 정책 과제. 이삼식, 정경희 외. **저출산 원인과 파급효과 및 정책방안** (pp. 125-15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수정 (2016). 원가족 부모와의 관계 및 현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 및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과의 관계.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2(2), 73-88.
- 김은주, 조정미 (2011). 간호대학생의 아동기 가정폭력경험, 아동기 학대피해경험 및 아동학대 심각성 인식에 관한 연구. **놀이치료연구**, 15(2), 97-109.
- 도미향 (2011). 대학생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미래 결혼과 출산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6(4), 163-178.
- 박수빈, 김희화 (2012).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과 자녀가치관 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50(5), 79-89.
- 박현숙 (2017). 어머니의 회복탄력성이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현욱 (2013). 저출산에 대한 인식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종림, 정익중 (2013). 부부폭력목격 경험과 학대경험이 아동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타분석. **사회과학연구**, 29(1), 121-142.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8). 2017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신선인 (2008).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아동,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가족복지학**, 23, 153-182.
-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 (2009). 회복탄력성 검사지수의 개발 및 타당도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55, 105-131.
- 신지현 (2013). 유배우 취업여성의 재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혜섭 (2000). 아내구타 가정 아동의 행동문제에 관한 연구 - 아내구타 피해 여성을 위한 쉼터 거주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연구**, 16, 67-85.
- 신효영, 방은령 (2009).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치관과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대한가정학회지**, 47(10), 123-136.
- 안귀여루, 서경현(2007). 성장기 가정 내 폭력경험이 성인 초기 적응에 미치는 영향 - 부모간의 폭력 관찰 경험과 자신에 대한 폭력 행동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3(4), 83-100.
- 이선정 (2009). 대학생의 가족건강성 및 관련 변인이 부모됨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1), 243-266.
- 이승주, 문승현 (2017). 직장 기혼 여성의 첫 자녀 출산의사와 관련된 근로 및 출산장려제도 요인 분석. **한국가족복지학**, 55, 129-155.
- 이영웅 (2011). 정서적 학대경험, 부정적 자기개념, 수치심이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

-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유민 (2014). **대학생의 자아탄력성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진, 안귀여루 (2016).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이 이들의 교사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불안과 우울을 매개 변인으로-. **청소년학 연구**, 23(5), 313-330.
- 이주성 (2005). **아동기 피학대경험이 폭력행동에 미치는 영향: 해리와 감정표현불능증의 매개효과 검증**.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진선, 정문자 (2007).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부모역할만족도 및 배우자의 부모역할지지와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양육행동 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5(5), 85-94.
- 이춘화 (2018). **직장 기혼여성의 추가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직장 유형과 근무형태에 따른 의사결정 나무분석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미지, 김종운 (2019). **고등학생의 외모만족도, 거부민감성, 사회적지지, 자아탄력성 및 심리적 안녕감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청소년 상담연구**, 27(2), 93-125.
- 정옥분, 정순화 (2016). **부모교육**. 서울: 학지사.
- 정윤경, 김제엽 (2005). **부부갈등이 성인초기 미혼자녀의 이성과의 친밀감 위험과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연구**, 12, 70-103.
- 최선미 (2015). **유아 행복과 관련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 기질, 양육효능감, 자아탄력성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연실, 성미애, 이재림 (2014). **출산 연기형 무자녀 기혼자의 출산 연기 동기와 정책적 요구 탐색**. **한국가정관리학회 통합학술대회 자료집: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10주년 기념**, 260.
- 최장원, 김희진 (2011). **가정폭력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자아개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8(1), 73-103.
- 최형성 (2002).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및 스트레스와 아동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추경진, 최종옥 (2015).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과 청소년기 자살생각 간의 관계: 자기체계 손상과 우울의 매개효과**. **인간발달연구**, 22(4), 83-103.
- 통계청 (2019). **2018 한국의 사회지표**. 대전: 통계청.
- 파이낸셜뉴스 (2017. 8. 24). **국민 72.8%, 저출산 체감...원인은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http://www.fnnews.com/news/201708241401027129>에서 2020년 1월 3일 인출
- 하쾌남 (2016). **유아기 맞벌이 부부의 일-가족 균형, 회복탄력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직무만족도와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울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지인, 함경애, 천성문 (2014). **부모의 부부갈등과 결혼안정성과의 관계에서 부부갈등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인문학 논총**, 36,

- 381-405.
- Allen, C. (1993). *An investigation of parenting efficacy*.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Georgia.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uyukcan-Tetik, A., Finkenauer, C., Siersema, M., Vander Heyden, K., & Krabbendam, L. (2015). Social relations model analyses of perceived self-control and trust in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7, 209-223.
- Cassé, J. F. H., Finkenauer, C., Oosterman, M., Geest, V. R., & Schuengel, C. (2018). Family conflict and resilience in parenting self-efficacy among high-risk mothe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3(6), 1008-1029.
- Coleman, P., & Karraker, K. (1998). Self 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1), 47-85.
- Davis, J. L., Petretic-Jackson P. A., & Ting, L. (2001). Intimacy Dysfunction and Trauma Symptomatology: Long-Term Correlates of Different Types of Child Abuse,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4(1), 63-79.
- Finkelhor, D., Ormrod, R., & Turner, H. (2007). Polyvictimization and trauma in a national longitudinal cohort.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9(1), 149-166.
- Haj-Yahia, M. M., & Bargal, D. (2014). Exposure to family violence, perceived psychological adjustment of parents, and the development of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among palestinia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0(16), 2928-2958.
- Hardy, N. R., Soloski, K. L., Cole Ratcliff, G., Anderson, J. R., & Willoughby, B. J. (2015). Associations Between Family of Origin Climate, Relationship Self Regulation, and Marital Outcome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41(4), 508-521.
- Hart Parade, S., Supple, A. J., & Helms, H. M. (2012). Parenting During Childhood Predicts Relationship Satisfaction in Young Adulthood: A Prospective Longitudinal Perspective. *Marriage & Family Review*, 48, 150-169.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Guilford Press. doi: 10.1111/jedm.12050
- Jones, T. L., & Prinz, R. J. (2005). Potential roles of parental self-efficacy in parent and child adjustment: A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5, 341-363.
- Lopez, M., & Heffer, R. (1998). Self-concept and social competence of university student victims of childhood physical abuse. *Child Abuse & Neglect*, 22(3), 183-195.
- Suzuki, S., Holloway, S. D., Yamamoto, Y., & Mindnich, J. D. (2009). Parenting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Family Issues*, 30(11), 1505-1526.

- Vohs, K., Finkenauer, C., & Baumeister, R. F. (2011). The sum of friends' and lovers' self-control scores predicts relationship quality. *Social Psychological & Personality Science*, 2, 138-145.
- Walsh, F. (1998). *Strengthening family resilience*. Guilford Press.
- 1 차원고접수 : 2020. 01. 10.
수정원고접수 : 2020. 03. 09.
최종게재결정 : 2020. 03. 17.

**The sequential mediation effects of ego-resilience and
parenting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perience of child abuse and spousal violence witnessing, and
decisions of parenthood among unmarried men and women**

Jun, Eun Da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School of Human Ec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is study aimed to examine whether the experience of child abuse and of witnessing spousal violence has an effect on the decision of parenthood among unmarried men and women, and to clarify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and parenting self-efficacy in such a relationship. Two hundred and eighty-two unmarried men and women completed a questionnaire about child abuse, spousal violence witnessing, ego-resilience, parenting self-efficacy, and parenthood decisions. Data were analyzed to assess the sequential mediation effects between the variables using SPSS Process Macro model 6.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hild abuse indirectly had an influence on parenthood decisions through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and parenting self-efficacy. Second, spousal violence witnessing had a direct influence on parenthood decisions. However, when adding ego-resilience and parenting self-efficacy to the model, spousal violence witnessing had an influence on parenthood decisions through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and parenting self-efficacy. These findings show the importance of relatively highly organized preliminary parental education that places more emphasis on the development of ego-resilience and the formation of parenting self-efficacy, in order to construct positive perceptions of the parenthood decisions of unmarried men and women.

Keywords: child abuse, spousal violence witnessing, ego-resilience, parenting self-efficacy, decision of parenthood